제28호 【루계 제 2 4 9 6호]

주체 107 (2018)년 6월

로요일

음력 5월 17일

절세위인의 향도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일 떠 세 우 자 !

철 저 히 리행하여 판문점선언을 성 기 어나가자

경 애 하 는 최 교 령 도 자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북남관계, 조미관계 에서 력사적인 전환의 국면이 펼쳐 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겨 레는 7.4공동성명발표 46돐을 맞이 하게 된다.

속 대

변

지금으로부터 46년전, 자주, 평 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에 기초하여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 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 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 장과 방도를 뚜렷이 밝힌 7.4공동 성명이 발표된것은 온 겨레에게 조 국통일에 대한 희망과 락판을 안겨 준 일대 민족사적사변이였다.

돌이켜보면 1970년대에 들어서면 서 조성된 내외정세는 조선반도에 서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 한 결정적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 였다.

당시 조성된 정세를 깊이 통찰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 60(1971)년 8월 6일 남조선의 집권 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의 폭넓은 협상 방침을 제시하시여 막혔던 북남관 계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시였다.

마침내 나라가 분렬된이래 수십 년만인 주체61(1972)년 5월 평양에 서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이 열리 게 되였다.

주체61(1972)년 5월 3일 북남고 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남측대표들을 접견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반드시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 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천명하시였다. 남측대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 혀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전적 인 공감을 표시하면서 통일의 큰 기둥으로 삼을것을 확약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주체61(1972)년 7월 4일 북과 남은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 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을 공식발

통일문제해결의 가장 곧바른 길 을 밝힌 조국통일3대원칙, 그것은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조국통일 늘 민속지상의 파업으로 내세우시 일로선을 견지하시였으며 조국통 일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 하여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이 제시하실수 있는 위대한 통일대강 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북과 남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 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 일대강이다.》

조국통일3대원칙을 기본내용으 로 하는 7.4공동성명이 발표됨으 로써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단합 된 힘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평화 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기초가 마련 되였으며 우리 겨레는 뚜렷한 기준 을 가지고 통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공화국은 지난 46년간 7.4공동성 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꾸 준하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 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범한 예지로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하 고있는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고 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 하시여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나라의 통일을 가장 공정 하고 순조롭게 실현할수 있는 튼튼 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 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 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 령을 조국통일3대헌장으로 정립하 시여 조국통일의 앞길을 휘황히 밝 혀주시였으며 분렬사상 처음으로 두차례의 력사적인 평양상봉을 마 련하시고 조국통일3대원칙을 구현 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채 택발표하시여 우리 민족끼리의 리 념밑에 전진하는 자주통일시대를 펼쳐주시였다.

오늘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위 업의 진두에는 민족의 태양이시 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서 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 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존엄높 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

문점에서 두차례의 력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4.27판문점 선언의 발표로 이 땅우에 자주통 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쳐주 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 칙을 구현한 조국통일의 새로운 리 정표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온 민족 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반영한 자주 통일선언,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실천 적방도를 밝힌 평화통일선언, 민족 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기 위한 구 체적대책들을 명시한 민족대단결 선언이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천출명장의 담력, 세련된 정치실력과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로 분렬과 대결의 력 사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발전 의 전환적국면을 마련해주시였으 머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불멸 의 업적은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 에 빛나게 아로새겨질것이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는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인 판 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자주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남관계의 전면적이 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 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 당겨나가야 한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며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의 절박한 요구이다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나 가는데서 어제도 그러하였지만 오 늘도 래일도 계속 확고히 견지해나 가야 할것은 민족자주의 원칙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이번 판문점선 언에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 칙을 중요하게 확인하였다.

북과 남은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마땅히 민족자주의 원 칙, 우리 민족끼리의 원칙에서 풀 어나가야 한다. 온 겨레가 뜻과 힘 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 세우실 확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판 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번영의 야 할것이다.

새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 리는 미래에로 보폭을 맞추며 전진 해나가야 한다.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실현하여 판문점회 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 조시키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 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 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 여 공동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 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 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 인 문제이다.

조국통일의 주체가 전체 조선민 족이듯이 이 땅의 평화를 수호해야 할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겨레이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밝히고 있는것처럼 북과 남은 지상과 해 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 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 위를 전면증지하며 호상협력과 교 류, 래왕과 접촉이 활성화되는데 따른 여러가지 군사적보장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적인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고 확고한 평 화체제를 수립하는것은 더이상 미 룰수 없는 력사적과제이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항구적이 머 공고한 평화체제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나가야 한다.

북과 남이 리해와 신뢰에 기초 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 고 그에 모든것을 지향시켜 나간 다면 북남관계는 더욱 가속화될것 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이룩 될것이다.

온 겨레는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 가기 위한 력사적리정표인 판문점 선언리행을 위한 거족적인 통일대 진군을 힘차게 다그침으로써 이 땅 우에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 새 아침을

6. 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해외위 원 장 회의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 공동위원회 북, 남, 해외위원 장회의가 6월 21일부터 22일까 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박명철위원장을 단장 으로 하는 북측위원회 성원들과 리창복상임대표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남측위원회대표단, 손형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해외측 위원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2000년 6월 민족 분렬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북 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의 채택은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놓은 민족사적대사변으로 된다고 일치하게 강조되였다.

회의에서는 오늘의 시대는 6.15통일시대의 새로운 높은 단계이라고 강조하면서 판문 점선언리행을 위한 운동을 적 극적으로 벌려나갈 결의들을 표명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들 을 합의하였다.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과 그를 계승한 판문점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 리정표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 가며 선언리행을 위한 전민족 적운동을 과감히 전개하여 민 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도모 해나가기로 하였다.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모든 활동에서 우리 민 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 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 고히 견지해나가기로 하였다.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 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나 가며 판문점선언리행에 장애 를 조성하는 온갖 행위를 단 호히 배격해나가기로 하였다. 2. 6.15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온 겨레와 함께 거족 적인 판문점선언지지리행운 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하였다.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판문

점선언리행을 위한 전민족적 분위기를 높여나가기 위하여 10.4선언발표 11돐을 비롯한 민족공동의 기념일들에 민족 공동행사들을 성대하게 개최 하며 북과 남, 해외의 계층별, 부문별, 지역별 단체들사이의 래왕과 접촉, 현대활동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8.15민족공동행사와 관련하 여서는 정세를 보아가며 론의 하기로 하였다.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전민 족적인 통일대회합을 성사시 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 기로 하였다.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일본 당국이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고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죄악을 청산하도록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기로 하였다.

3.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새로운 력사적시대에 맞게 조 직을 더욱 확대강화해나가기 로 하였다.

6. 15민족공동위원회는 규약 에 판문점선언리행문제를 보 충하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 해 협의하고 앞으로 이를 6.15 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6. 15민족공동위원회 회의를 해마다 년초에 정기적으로 개 최하고 통일운동방향을 협의

본사기자

젘 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북남적 십자회담이 지난 22일 금강산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박용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 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우 리측 대표단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8.15를 계기로 금강산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기로 하고 상 봉준비를 위한 실무적문제들에 대해 협의하였 으며 앞으로 필요한 적십자회담과 실무접촉을 계속 가지기로 하였다.

하기로 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공동보도문을 채택발표하 였다.

본사기자

철 분 도 협 과 핸 회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 급회담합의에 따라 북남철도협력분과회닦이 지난 2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 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김윤혁 철도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

판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가하 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동, 서해선철도를 련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 을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하였다

본사기자

도 로 행 협 력 분 과 호 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 담합의에 따라 북남도로협력분과회담이 지난 28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을 단 장으로 하는 우리측 대표단과 김정렬 국토교통 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대표단이 참

가하였다.

회담에서 북과 남은 동, 서해선도로현대화사 업을 동시병행의 원칙에서 추진해나가기로 하 고 이를 위한 실천방안들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본사기자

회 할 나 라 의 수 림 화 귀 중 한 현 Нŀ

원 묘 도 0 로 려 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4 사, 종합편의시설, 살림집 등을 현대적 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총공세 으로 건설하였다. 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강원 땅에 대규모의 나무모생산기지가 일

떠섰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강원도 정신창조자들답게 자력갱생, 간고분투 의 정신을 발휘하여 수십정보의 면적 에 수지경판온실, 야외재배장, 원형삽 목장, 경기질생산장, 종자선별 및 파종 장을 비롯한 나무모생산구역과 관리청

나무모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수 있는 통합조종체계 준공사를 하였다. 가 구축된것을 비롯하여 나무모생산 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가 훌륭히 실현된 양묘장이 완공됨으로써 강원 도안의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 변시킬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다.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24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한상준 강원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강원도에서 양묘장 을 전국의 본보기, 표본이 될수 있게 꾸릴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의 구상과 결심이라면 산

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정신 의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시려는 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30여개 대상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와 현명한 령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의 건축물과 1만 2 000㎡의 온실건설, 1 000여대의 설비조립을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짧은 기간에 수행한데 대하여

그는 말하였다. 그는 먼 후날에도 손색이 없을 현 대적인 나무모생산기지로 일떠선 도양 묘장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훌륭히 완공된 강원도양묘장 준공식이 또 떠옮기고 바다도 메울 불같은 일 내 조국강산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사회 념을 안고 한사람같이 펼쳐나선 도안 주의선경으로 꾸리시기 위해 불철주야 가 안아온 빛나는 결정체이라고 강조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산림복구전 하였다.

>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도양묘 장을 훌륭히 일떠세운 그 기세, 그 기 백으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과 군민발전소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 설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

할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나라의 모든 산들을 황 투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오늘의 투 쟁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데 대하 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양묘 장을 돌아보았다.

본사기자













신

조중친선을 더욱 두러이하시여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나 라와 민족들간의 호상관계 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 났다. 그러나 뿌리깊은 나 무는 바람에 넘어지지 않 고 땅속깊이에서 나오는 샘 물은 마를줄 모른다는 말과 같이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 진 조중관계는 어제도 오늘 도 변함이 없고 보다 새로 운 단계에서 더욱 공고발전 하고있다.

최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중화인 민공화국을 또다시 방문하시 여 조중친선의 년대기우에 또 한폐지의 빛나는 장을 아 로새기시였다.

3개월안팎의 짧은 기간에 세번째로 이루어진 조중 최고령도자들의 상봉은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중 두 나라의 형제적친선의 뉴대를 세계에 뚜렷이 과시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습근평주석과의 회담에서 최 근 두 당사이의 전략적인 협 동이 강화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두터워지고있는 현실을 대단히 만족하고 소 중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조중 두 당, 두 나 라 인민들사이의 보다 긴밀 한 친선과 단결. 협조의 관 계를 더욱 발전시켜나갈 결 심과 의지를 피력하시였다.

습근평주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공적으로 주도하 시여 조선반도정세를 대화 와 협상의 궤도, 평화와 안 정의 궤도에 올려세우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진 싞으로 되는 축하를 드리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화 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열리고 조미관계에 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 나고있는 새로운 정세하에 서 중국을 세번째로 방문하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국 의 당과 정부간부들과 인민 들은 최대의 성의를 다하여 극진히 환대하였다.

습근평주석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국방문을 환영하 여 마련한 성대한 연회에서 김정은위원장동지가 조선인 민을 령도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 하여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 였으며 조선반도에서 대화와 완화의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조중이 한집안식구처 럼 고락을 같이하며 진심으 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모습 은 조중 두 당, 두 나라 관 계가 전통적인 관계를 초월

하여 동서고금에 류례가 없 는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내외에 뚜렷이 과시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습근평 동지와 맺은 인연과 정을 더 없이 소중히 여기고 조중친 선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 에로 부단히 승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 고 하시였다.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잇 닿아있는 형제적린방, 피로 써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돌 풍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친선관계를 새 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키 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확교부동한 뜻이고 의지 이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탁월하 고 세련된 정치경륜을 지니 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으 로 중국을 여러차례 방문하 시여 조중 두 나라 인민들사 이의 형제적우의를 더욱 두 터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 게 절감하며 아름드리 거목 으로 자란 조중친선이 대를 이어 푸르싱싱한 아지를 뻗 치며 더욱 굳건하여지고 조 중친선의 력사와 전통이 압 록강의 흐름처럼 영원할것 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하 고있는것이다.

김정훈



의

갈마지구가 새롭게 변모 되고있다. 갈마반도는 강원 도 원산 동부 원산만의 남부 연안에 위치하고있다. 예로 31 부터 아름다운 명승지인 명 사십리가 있는 여기에 해안 관광지구가 꾸려지고있다.

통

명사십리해변가를 따라 각양각이한 건축물들이 즐 비하게 일떠서고있고 드넓 은 면적이 록지로 형성되 고있다.

지난 5월 원산갈마해안관 팡지구건설장을 현지지도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불 과 몇개월사이에 정말 많 은 일을 해제꼈다고 하시 며 건설자들을 고무격려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하 루하루가 몰라보게 비약하 고 전진하는 이 땅에서 려 명신화가 창조되던 시기는 이제는 먼 옛날처럼 되여

버렸다고 하시면서 기적에

서 더 큰 기적에로 한계 모르고 줄달음치는 여 원 산갈마해 안관광지구 기 건설장에서는 또다시 새로 운 건설기적이 일어나고있 다고 하시였다.

원 산갈마해 안관광지구 는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 최고의 수준에서 향유 하도록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과 결심, 비범한 령도에 의하여 새 로운 건설기적속에 일떠서 고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국의 체모에 맞 게 훌륭한 해안관광도시 를 갈마반도에 꾸리실 설 계도를 펼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신년사 에서 건설을 최단기간내에 끝내도록 할데 대한 과업 을 제시하시였다.

그이께서 구상하고 결심 하신 창조물들을 그이께서

정하신 시간에, 그이께서 바라시는 높이에서 완벽하 일떠세우려는것은 전 인민의 한결같은 애국 열의이다. 그이의 구상 과 과업을 높이 받들고 공 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불 과 몇해동안에만도 려명거 리를 비롯한 현대적인 거 리들과 주택지구들, 과학 기술전당, 마식령스키장, 옥류아동병원, 류경치과병 이 응축되여있다. 원, 평양국제축구학교, 태 권도성지 등 교육, 문화,

보건, 체육분야의 창조물 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또한 류경김치공장, 평양 가방공장, 룡악산샘물공장 과 비누공장, 순천메기공 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등 수많 은 산업시설들이 우후죽순

처럼 일떠섰다. 하나하나의 창조물들과 재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 의 령도밑에 약동하는 젊음 으로 비약하는 공화국의 모 습, 나날이 달라지는 인민들 의 복리증진을 보여주는 축 도이기도 하다. 모든 건축 물, 창조물들에는 인민의 요 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 시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의 숭고한 인민관이 어리여 있고 륭성번영하는 문명강 국건설을 령도하시는 그이 의 숭고한 조국관, 미래관

원산갈마해 안관광지구를 빠른 기간에 인민들의 웃 음소리 만발하는 현대적인 문화휴양도시로,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 건설하시 러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 의 구상이고 결심이다.

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 며 공사규모와 진척정형, 자재와 설비보장대책 등 건설전반실태를 구체적으 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P

모든 대상건설에서 천년책 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설계와 시공기준, 건설공 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건축물의 질을 최상의 수 준에서 보장하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 러시면서 명년도 태양절까 지 완공하도록 할데 대하 여 이르시였다.

전 체 건 설 자 들 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하 여주신 기일안에 건설을 완공하여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노도치는 공화국의 기상을 다시금 과시할 열 의에 넘쳐 공사속도에 박 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상 과 결심은 실천이고 현실이 기에 사람들은 머지않아 동 해의 명승지에 웅장화려한 자태를 드러낼 새 해안도시 를 눈앞에 그려보고있다.

장 혜 련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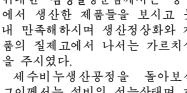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되는 《은하수》 제품들은 피부안전성, 사용효과성 등 여러 면에서 손색 이 없어 사람들속에서 수요높은 인 기상품의 하나이다. 지난해에 있은 제28차 전국인민소비품전시회에서 도 《은하수》제품들은 우수한 평 가를 받았다.

수십년의 력사를 가진 평양화장 품공장은 여러번 현대화과정을 거 치면서 쓸모에 있어서나 문화성에 있어서 질좋은 화장품을 만들수 있 게 되였고 생산능력도 훨씬 큰 공 장으로 변모되게 되였다.

주체92(2003)년 8월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공장 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보시고 못 내 만족해하시며 생산정상화와 제 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가르치심

세수비누생산공정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설비의 성능상태며 제 품의 질을 가늠하여보시였으며 연 지를 보시고서는 녀성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로 다양하게 만들도록 할데 대하여 이르시였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장품들이



을 받는 공장으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이의 교시에는 화장 품생산에서는 질이 기본인만큼 하 나를 만들어도 질적으로 잘 만들어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하도록 하시 려는 당부가 담겨져있었다.

그후 공장에서는 새 제품개발과 질개선에 힘을 넣어 다양한 품종의 세수비누, 수요자들의 체질과 특성 에 맞는 치약, 여러가지 과일향을 배합한 어린이치약, 사람들의 건 강증진에 효능높은 약재들을 넣은 크림과 살결물, 각종 물비누 등 다 종다양한 화장품들을 대량 생산하 게 되였다.

이렇듯 평양화장품공장에는 인민 들이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향유 하도록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 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민헌신의 자 욱이 새겨져있다.

인민의 복리향상에 언제나 깊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세해전 2월초 평양 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날 여러 생산공정을 돌아보신 그이께서는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질 좋은 화장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 록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기호와 요 구를 헤아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크림, 향수, 살결물, 연지, 머 리기름, 화장비누 등 화장품들을 여러가지 기능과 효과를 나타낼수 있게 잘 만들며 천연적이고 저자 극적이며 기능적인 제품들을 개발 생산하도록 할데 대하여 강조하시 였다. 그러시면서 공장을 현대화 하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 시였다.

공장 책임일군의 한사람인 최성 애는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 지지도는 모든 생산자들에게 《은 하수》 상표를 단 제품의 멋을 더 욱 살려나가겠다는 열의를 북돋아 주었다고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대 로 공장에서는 개건현대화공사를 벌려 산업건물들을 록색형, 에네 르기절약형으로 꾸리고 생산공정 의 자동화, 무균화, 무진화를 실 현하였으며 설비들도 갱신하여 현 대적이며 능력이 큰 공장으로 전변

공장에서는 미백 및 보습작용, 항 균작용, 알레르기성질환에 효과가 있는 로화방지크림, 미백살결물, 머리칼고착제 등 화장품들도 새로 연구개발하였다. 고려국제려행사의 관계일군인 전혁신은 조선에 체류 하고있는 아시아, 유럽 등 여러 지 역들에서 온 관광객들속에서 《은 하수》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다 고 하였다.

넯은

해외조국통일운동의

지난해 10월 개건된 공장을 또다시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질좋은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 에게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

는 화장품들의 가지수도 많고 질 도 좋을뿐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곽들도 곱다고 하시면서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된 공장에 서 쏟아져나오는 세계적수준의 화 장품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녀 성들,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 말 기쁘다고 만족해하시였다. 그 러시면서 화장품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서 없어 서는 안될 중요한 소비품의 하나 라고 하시며 우리 사람들의 기호 와 특성, 다양한 취미에 맞고 세 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과 경쟁할 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화장품 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할데 대

이처럼 평양화장품공장의 생산공 정과 설비들, 제품 하나하나에는 인 민들의 유족하고 문명한 복리향상 을 위하여 기울이신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인덕의 세계가 력력히 어리 여있다.

하여 이르시였다

사람들의 아름답고 문명한 생활 에 넘쳐흐르는 《은하수》향기는 숭고한 인민사랑의 향기이다.

안 아주 시여 (10)

U

본사기자 리 설

리발사들과 하신 약속

주체101(2012)년 5월 1일 어느 한 기계 공장을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구내에 있는 문화후생시설에 O 도 들리시였다.

> 수영장과 물놀이장, 식사실까지 일일이 돌아보 신 그이께서는 2층에 있는 리발실에도 들어가보 시였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리발사들에게 머 리를 잘 깎는가, 기술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였 는가고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자신께서도 여기에 와서 리발을 해도 일없겠는가고 하시였다. 뜻밖 의 물으심에 당황하여 대답을 못드리던 리발사들 이 그이의 소탈한 풍모에 끌려 저마끔 리발을 해 드리겠다고 그이앞에 나섰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후날 한번 꼭 시간을 내여 머리깎으러 오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남기시였다.

한 로동자의 집을 찾으시여

헌 주체101(2012)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평양의 창전거리에 입사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의 집을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살림집의 여러곳을 세심히 돌아보시 며 불편한점은 없는가, 부족한것은 없는가 친근하 게 물으시고 사랑의 축배잔도 부어주시였다. 그들

부부와 허물없이 마주앉으시여 가정적인 분위기속 에서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던 그이께서는 세대주 에게 부모들이 집에 와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부 모들이 지방에 있어서 아직 와보지 못했다는 말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사진을 찍어 TV로 내보내면 부모들이 보고 기뻐할것이라고 하시였다.

본사기자

국통일보다 더한 국

사가 어디에 있겠는

력사상 처음으

面

변이다.

0 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2018년 6월 12일 은 세계력사에 기 록될것이다.》라 정부, 정당, 단체들이 조미

수뇌회담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조미수뇌 상봉과 회담은 철두철미 조미사이의 기나긴 적대관계를 끝장내고 두 나라 인민의 리익과 세계 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 칭송하고있다. 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 한 의지와 중대결단에 의하 의 매혹이고 흠모이다. 여 마련된 세기적만남이다.

그이께서는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오늘 여기까지 와 로 되는 조미수뇌 닿는 과정이 결코 헐치는 않 상봉과 회담은 전 세계를 격동시킨 았다고 하시면서 과거의 력 세기적인 특대사 사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 세계언론들은 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기도 《력사적인 조미 했지만 그 모든것을 과감하 수뇌상봉》, 《불 게 짓밟고 이렇게 이 자리 과 몇달전까지만 에까지 왔으며 새로운 출발 하여도 상상조차 점에 서게 되였다고 말씀하 하지 못하였던 사 시였다. 세기적인 사변을 일 변이다.》, 《장 으킨 결단은 70여년간 극도 장 수십년세월 세 의 적대와 증오로 하여 핵전 기와 세기를 이어 쟁으로까지 번져질번 한 대 오던 적대관계, 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새로 지구상에 남아있 운 미래를 열어가실 확고한 던 마지막랭전체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

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통큰 결단이 평화의 새 력사를 만 고 전하였으며 여러 나라 들었다고 격찬하면서 《조 선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 를 여는 강력한 지도자》, 《현대외교사의 거물급정 치인》, 《2018년 세계정 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적지도자》, 《세계평 화의 영웅》으로 존경하며

> 이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상에 대한 겨레

한 현 옥

민족의 단합과 통 일을 위한 성스러 운 애국의 길에 삶 의 아름다운 자욱을 남긴 해외동포들가 운데는 림창영선생 도 있다.

률군에서 태여난 림창영선생 은 일찌기 1930년대 미국으 로 건너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생활을 하였으며 반일운 동을 벌리였다. 8.15후에는 남조선으로 돌아와 나름대로 민족의 운명을 놓고 고심도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하였다.

《부귀도 공명도 내 알바 가 아니다. 오직 나라 사랑 만이 나의 천분이다.》

이런 초지를 품고 몸부림 도 쳐보고 정계, 학계, 언론 계, 종교계 등에 관여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민족 의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림 창영선생이였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키없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 는 배와 같은 처지에서 벗어 날수 없었다.

남조선을 떠나 미국에서 살고있던 선생이 고민과 번 뇌의 수렁에 깊숙이 빠져 헤 여나오지 못하고있을 때인

식민지민족의 운명을 태줄 1970년대 중반기에 그의 안 처럼 감고 1909년 10월 은 해인 리보배녀인이 공화국 을 방문하게 되였다.

민족 단합의

어느날 그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남편은 애국주의사상이 매우 높다고 하시면서 림선생의 애국주의 사상에 매우 탄복하고있다고

안해에게서 위대한 수령님 의 은정어린 믿음을 받아안 게 된 림창영선생의 마음은 그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 와 감사의 마음으로 끓어번 졌다.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덕 망과 친화력에 매혹된 그는 평양방문의 길에 올랐다. 평양방문의 나날 그는

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 게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자고 하시였다.

선생은 눈물을 흘리며 내

가 비록 민족을 위해 한 일 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 다, 그러나 오늘 주석님께서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니 미 력이나마 보태여 주석님을 생각입니다, 나는 도울 주석님을 민족의 사표(덕행 이 높아 스승으로 되는 사 람)로 삼고 눈에 흙이 들어 가는 날까지 통일성업에 매 진하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진 정을 터놓았다.

晋 에

그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통일 방안을 적극 지지찬동하면서 미국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 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운동 을 활발히 벌렸다.

1992년 4월 림창영선생 은 또다시 조국방문의 길 올랐다. 평양에 도착 한 림창영선생은 안해와 함 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는 영광을 지니게 되였다.

선생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자기는 그리스도교인으로서 이번에 조국에 올수 있은것을 하느 님덕으로 알았는데 조국에 와서 보니 주석님덕망때문 이였다고, 김일성주석님 슬 하에서 온 겨레가 꼭 통일 을 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 지게 되였다고 말씀드렸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에

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서 우리 인민, 우리 민족이 하느님이라고, 온 겨레를 단 합시키면 통일이 백번 가능 하다고, 그래서 림선생이 미 국에 돌아가면 앞집문도 두

게 련방제통일방안에 대하

드리고 옆집문도 두드리고 뒤집문 도 두드리면서 동포들모두가 단 합하여 조국통일 운동에 펼쳐나서 도록 해야 한다 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

국의 래일이 꼭 오리라는 확 였다. 신을 가다듬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생 에게 년로한 몸으로 먼곳에 서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 겠다고, 선생님과 같은분들 이야말로 해외조국통일운동 의 원로이고 선각자라고 하 시며 그의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였다. 크나큰 감격과 흥분속에 선생은 위대한 장군님을 우 러르며 그이의 손을 오래도

록 놓을줄 몰랐다.

선생은 끓어오르는 흠모의 마음을 억제 못하며 위대한

> 장군님께서 분초 를 미루시고 무 게 되였다. 상의 영광을 베 풀어주시니 송 구함을 금할길 없다고 말씀드 렸다. 위대한 아갈수 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조

가고 하시며 7천만 겨레의 최대의 숙원 원로로 내세워주시며 인 조국통일위업앞 에서는 모두가 싞 신을 바칠줄 아는 의 교시에서 선생은 통일조 전사가 되여야 한다고 하시

그이께서는 통일성업의 길 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자고 하시며 다시금 그의 손을 굳

게 잡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5년 12월 그가 또다시 조 국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체 나날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시였으며 은정어린 사랑의

진정 절세위인들의 사랑은 민족적량심을 지니고 통일애 국에 사는 온 겨레를 따뜻 이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한 없이 자애로운 사랑이라는것 가 새로운 국사 을 선생은 심장으로 절감하

> 하기에 선생은 인생말년 에도 운명의 키를 바로 잡 고 온넋을 바쳐 민족대단합 의 항로를 따라 기운차게 나

> > 본사기자 주일봉

민족의 자주적통일번영을 위한 민족끼리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열렬한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조국통 하여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우 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 를 반영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 이 채택된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경이적인 중대사변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족자주 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 를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나갈것 이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내외 반통일세력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의 새 력사를 써나갈것 입니다.》

삼천리강산을 밝게 비치는 휘 황한 해빛과도 같은 절세위인의 단에 의해 마련된 력사적인 판문 점수뇌상봉과 회담소식에 접하여 무한한 격정과 환희에 휩싸인 온 겨레는 지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민 족의 앞날은 밝고 창창하다는 확 신과 신심에 넘쳐 거족적인 통일 애국의 대장정에 힘차게 펼쳐나 서고있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이 밝혀준 진로를 따라 우리 민족이 화해단 합과 평화번영, 통일의 새 력사 를 창조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민 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모든 문제를 우리민족끼리리념의 원칙 에서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민 족끼리리념은 민족의 자주적통일 번영을 확고히 담보하는 애국애 족의 리념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요구와 근 본리익으로 보나 오늘의 격변하 는 현실로 보나 북과 남, 해외 의 온 겨레에게 있어서 우리민족 끼리리념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고 확고히 구현해나가는것은 민족의 자주적운명발전에서 실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운명 발전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한 가 장 독창적인 애국애족의 리념

선행시기의 민족운명론은 그 어느것이나 다 시대적제한성과 사상리론적미숙성으로 하여 민족 운명개척의 합법칙성과 실천적방 도를 옳바로 밝힐수 없었다.

민족의 운명개척과 발전에 관 한 과학적인 사상리론은 불세출 의 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에 의하 여 비로소 독창적으로 제시되 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여 민족우명 문제에 관한 선행리론들의 제한 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인 류사상 처음으로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옹호실현할데 대한 민 족자주사상을 독창적으로 제시하 시여 민족운명발전의 가장 옳바 른 지침을 마련하시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과 인류사상사에 쌓아올리신 영구불 멸할 공적으로 된다.

곳화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민족자주사상은 걸출한 사상리 론가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 철저히 구 현되여왔다. 민족자주위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민족자주사 상을 확고히 견지해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비상히 앙양 되는 민족의 조국통일념원과 지 향을 반영하여 민족분렬사상 처 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우리 민족끼리를 민 족의 자주적통일번영을 위한 불 멸의 기치로 내세우시였다. 우리 민족끼리, 이것은 민족자주사상 을 통속적으로, 집약적으로 밝힌 대명제로서 온 민족이 자기 운 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 고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게 하 는 민족자주리념, 애국애족의 리

념이다.

민족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 는 사람들이 모여 력사적으로 형 성되고 공고화된 사회적집단이 다. 민족의 자주성은 민족이 자 기 신념에 따라 생존과 발전의 길을 선택결정하고 자체의 힘으 로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려 는 속성이다. 사람이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사회적존재로서의 존 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간답게 살 아갈수 있는것처럼 민족도 자주 성을 높이 발휘하여야만 사회적 집단으로서의 자기 존재를 유지 하고 발전시켜나갈수 있다. 이로 부터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 는것은 개별적사람들의 요구인 동시에 민족집단의 공동의 요구 로 되며 민족의 자주성실현정도 는 곧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규 제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의 운 명발전에 기본요인으로 작용하 는 민족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

하도록 추동하는 민족자주리념으 로서 각이한 계급, 계층을 초월 하여 전민족적인 공감을 불러일 으키고있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의 자 주적지위와 창조적역할을 강화하 고히 담보한다. 민족의 자주적운 명발전은 그 어떤 객관적요인이 아니라 민족자체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역할에 의해서만 실현가 능하다. 다시말하여 민족이 자기 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역할을 떠 나서는 그 어떤 숭고한 민족적 책임도 다할수 없다. 우리민족끼 리리념은 바로 민족성원들로 하 여금 자주적지위와 요구를 자각 하게 하고 그 실현에 대한 의욕 과 의지를 높여 자주적권리를 적 극 행사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민족이 자립적인 생활단위로서의 자기 존재를 공고히 하고 발전 시켜나가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 제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각을 가지게 함으로써 민족의 창조적역할을 강화하게 한다. 특 히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성원 들로 하여금 민족자결의 신성한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도록 함으 로써 외세의 지배와 예속, 간섭 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재와 존엄 을 지키게 하며 민족의 자주적유 명발전을 담보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적단 합을 이룩하여 민족의 주체적력 량을 강화하게 한다. 민족의 주 체적력량은 민족의 자주적운명발 전의 결정적요인이다. 민족의 자 주적발전은 몇몇의 선각자나 애 국지사들만으로는 실현될수 없으 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 민족 의 주체적력량에 의하여 이룩되

지금 북과 남, 해외의

고있다.

한다.

는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

을 이룩할 열망으로 가슴 불태우

지난해말까지만 해도 전쟁의 구름

이 짙게 드리웠던 조선반도에 평화

의 기운이 감돌고 자주통일의 새시

대를 향한 겨레의 드높은 발걸음소

리가 높이 울리고있다.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정세에서 일어나고있는 오

늘의 극적인 사변들은 북과 남의 공

동의 노력과 온 겨레의 지향과 념원

온 민족과 세계앞에 약속한 판문

점선언은 그 어떤 정세파동이나 주

변환경에 구애됨이 없이 북과 남이

주인이 되여 일관하게 리행해나가야

북남관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모

그 어떤 외세도 북남관계문제에

있었다.

든 문제들은 철두철미 민족자주의

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진

행된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

에서는 2018년 4월 27일에 채

택된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

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 미합중국이 조선반도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으

노력한다는것이 명시된 조미공동성명이 채택되였다.

이것은 평화를 사랑하는

온 겨레와 세계인민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신심을 안겨

돌이켜보면 지난해말까지

만 해도 조선반도에서는 언

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되여

주고있다.

게 된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족을 단 합시키고 민족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여 민족의 자주적운명발전 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게 한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우리민족끼리리념은 민 족문제해결의 필연적요구로부터 출발하여 민족의 특성과 그 발전 의 합법칙성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고 민족운명발전의 력사적 교훈과 실천적경험을 일반화한것 으로 하여 진리성과 생명력을 가 지는 애국애족의 리념이다.

우리민족끼리리념을 확고히 견 지하는것은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하 게 나서는 요구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외세 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화 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 하는 문제이다. 다시말하여 조국 통일문제는 우리 겨레의 운명에 과한 무제이며 우리 민족의 생명 에 관한 문제이다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우리 민족끼리리념을 확고히 견지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 히 무장하여야 한다.

민족자주의식은 자기 주인으로서의 자각이며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이다. 민족성원들이 민족자 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민족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실 천하는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되 며 민족문제, 조국통일문제해결

그것은 외세의

에서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다. 민족자주의식으로 무장 하는것은 특히 우리 민족에 대 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물리 치고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이룩 해나갈수 있는 근본요인으로 된 다. 바로 여기에 민족자주의식이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경지해나가 기 위한 출발점으로 되는 근거 가 있다.

민족자주의식으로 튼튼히 무장

하는데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 는 그에 배치되는 사상경향인 사 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는것이다. 사대주의에 물 젖으면 자주의식이 마비되여 자 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어보며 남 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하게 된다. 외세의존사상에 빠지면 자기 민 족의 힘은 믿지 않고 남의 힘만 을 크게 보면서 제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려는 의지와 굴종하게 된다. 결국 민족자주의 식이 민족을 강하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사상적힘이라면 사 대주의와 외세의존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사 상적독소이다.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 배하고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 을 믿어야 하며 민족문제를 론의 해도 자기 민족과 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우리민 족끼리리념을 확고히 견지해나가 자면 애국애족의 정신을 높이 발 회하여야 한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은 민 족자주리념의 기초이며 애국애족 의 정신을 지닌 사람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애국애족의 정신은 강하 민족적자존심과 자부심으로부터 우러나온다. 민족적자존심과 자 부심이 강한 민족은 힘있고 륭성 번영하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무기력하고 쇠퇴몰락하게 된다.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오며 찬란한 문화와 훌륭한 애국전통을 창조하고 빛 내여온 자랑스러운 민족이며 능 히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는 슬기롭고 힘있는 민족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사 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 를 초월하여 정의롭고 강위력한 조선민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 심을 깊이 간직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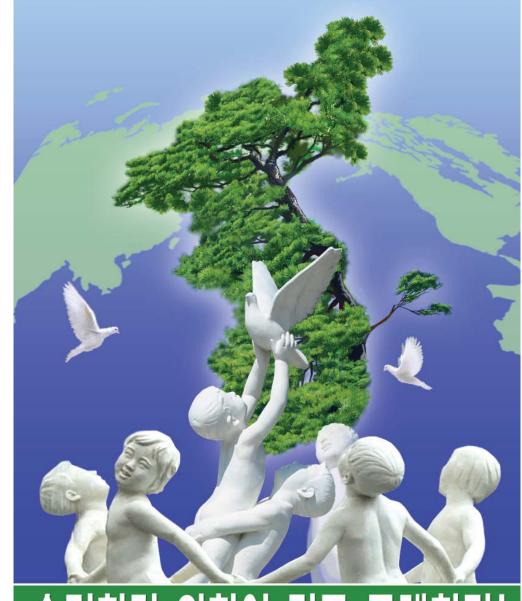
오늘 우리 겨레앞에는 력사적 인 판문점수뇌상봉이 열어놓은 민족의 화해단합,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빛내여나가야 할 민족사 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판문 점선언이 밝혀준 진로를 따라 북 남관계발전과 민족적화해와 단합 의 분위기를 적극 조성하며 각계 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래왕과 접촉을 활성화하고 조선 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나가는데 애국애족 의 지성과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

참다운 민족자주와 단합의 기 치인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더 욱 높이 들고 온 겨레가 굳게 못 쳐 힘차게 투쟁해나갈 때 삼천리 강토에는 평화롭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이 반드시 일떠서게 될 것이다.

김 령 성

조선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미중유의 사변과 기적이 마련된 6월도 다 지나갔다.

싱가포르에서의 력사적인 조미수뇌회담과 그 결과 채 택된 조미공동성명의 여운은 날과 날이 흐를수록 더욱더 진폭을 더해가며 행성에 메 아리치고있다.

조미공동성명은 조미 관계사상 최초로 두 수뇌분들이 새로운 조 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

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 을 추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 지를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선 언으로서 조미적대관계를 청 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 로 조미협력의 새시대, 세계 동의 지향과 요구를 그대로 운 관계수립의 계기를 마련

반영한 리정표이다. 돌이켜보면 조미사이의 관 어오는 불신과 대결의 관계 였다.

대결과 전쟁의 위험으로 극도로 불안한 조선반도정세 는 지역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 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 대를 열어나가는것은 인류의

념원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말처 럼 쉬운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공화국과 미국 사이에는 관계개선을 위한

이러저러한 협상들과 회담 들이 진행되였고 일련의 합

그러자면 조미사이의 신뢰 구축이 마련되여야 한다. 신뢰구축은 말로써가 아 니라 행동에 의해 이루어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력사 적인 조미수뇌상봉이후 조미 사이에는 호상존중과 자기들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지향 과 요구에 맞게 원만히 풀어나갈 수 있다

북남관계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간섭을 배격하고 북과 남이 주인

이 되여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럴 때만이 북남관계문제.

북남관계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 며 청탁하여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 하는 외세에게 간섭의 구실을 주고 문제해결에 복잡성만 조성하게 될뿐 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번 영을 이룩해나가야 할 주인은 외세

겨레인것이다. 민족이 바라는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을 이룩하자면 판문점선언에 명 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시된것처럼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군 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지 족화합에로의 극적인 전환을

치게 될것이라는것은 너무도 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이룩하였다.

가 아니라 다름아닌 북과 남의 우리

북과 남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조 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 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 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 해나갈것을 천명함으로써 오랜 세 월 대결의 랭기가 서려있던 이 땅 에는 마침내 평화의 기류가 감돌게 되였다.

조선반도의 화해와 완화의 흐름 을 추동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불신 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일체 행위를 주지하는데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 로 된다.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완 화하고 전쟁위험을 해소하는것은 민 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

문제이다. 하기에 지금 북과 남은 민족문제 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노 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력사

적인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있다.

장령급군사회담, 적십자회담, 철 도협력분과회담 등 부문별회담들이 진행되고 거기에서 일련의 합의들이 이룩되였으며 그 리행을 위한 사업 들이 진행되고있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운동사는 북 낚사이에 아무리 좋은 합의가 이루 어지고 훌륭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하여도 그것을 제대로 리행하지 못 하면 쌓이고쌓인 불신과 대립을 해 소할수 없고 결국 조국통일위업이 은 곧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것으 난관과 장애에 부닥치게 된다는 심 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는데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자 주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판 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함으로써 부 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 세우고야말것이다.

오신명

당연한 사실이다. 해소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평화보장 4.27 선언과 조선반도의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

하지만 공화국의 주동적 인 노력에 의해 올해에 들어 와 북남사이에 화해와 단합 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속에 분렬과 대결의 상징이였던 판문점에서 제3차 북남수뇌 상봉이 열리고 력사적인 판 문점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 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

력의 새시대, 세계의 평화

와 안전을 위한 새로운 미

래를 열어나가려는것은 공

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

위한 진정한 신뢰구축조치

를 취해나간다면 공화국도

그에 상응하게 계

속 다음단계의 추

가적인 선의의 조

미국측이 조미관계개선을

는 경우 지역과 세계의 평화

와 발전에 엄중한 피해를 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 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하기에 북과 남은 판문점 선언에서도 조선반도에서 첨 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서 나 서는 제반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고 공동보도문을 채택 한것은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북과 남이 함께 내짚은 의미있는

로 노력해나갈것을 확약하였

다. 지난 14일 판문점선언리

행을 위해 열린 북남장령급

군사회담에서 군사적긴장상

걸음이다. 앞으로 판문점선언에 명시

선반도의 정세는 평화와 민 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 된대로 쌍방사이의 모든 적 대행위들이 중지되고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며 서해열점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 사적충돌을 방지하게 된다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될것이다.

>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 을 철저히 리행하여 이 땅의 공고한 평화를 마련하기 위 한 투쟁에 펼쳐나섰다.

판문점선언이 가리키는 길 을 따라 나아갈 때 조선반도 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이 믿음직하게 수호될것이다. 천 영 민

면서 《판문점선언리행의 선봉대가 되자!》 고 결의하 일관을 확립하여 통일운동

고있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 위원회, 《한국대학생진보 《한국민족예술 인총련합》을 비롯한 각계 층 단체들은 《남북정상회 담성사환영 및 리행결의대 회》를 열고 《판문점선언 은 7.4공동성명, 6.15공동 선언, 10.4선언에 이어 통 일실현을 위한 새로운 강령 적인 리정표이다.》, 《평 화를 지향하는 우리 민족과 하고 기뻐하고있다.》고 하 였다.

《판문점선언리행의 선봉대가 되자!》

통일맞이, 남북교류협력지

서 벗어나야 한다.》, 《조 을 더욱 확대강화해야 한

도 《한반도평화와 자주통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로 돗자들쀼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련대 를 강화해야 한다.》,《남 과 북, 해외의 통일운동단 체들이 힘을 합쳐 통일운동 을 전민족적범위에서 더욱 확대강화해나가야 한다.》

본사기자

조미공동성명은 과거의 의들도 마련되였다. 그러 불미스러운 력사에 종지부 를 찍고 조미 두 나라 인 민의 리익과 인류의 념원대 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 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새로 넓어졌다.

하였다. 공화국과 미국이 어두운 계는 지난 세기 중엽부터 날 불신과 대결시대를 청산하고 운 과거가 되풀이되지 말아 과 달, 해를 넘어 세기를 이 광명한 화해와 번영의 새시 야 한다.

나 그 리행과정에 상대방 에 대한 뿌리깊은 불인정 과 대결관념의 작용으로 반 목, 질시감정의 폭이 더욱

조미사이에 낡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시대를 열어나가 는 오늘에 와서는 불미스러 이다.

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련 의 궁정적인 조치들이 취해 지고있다.

천리길도 한걸음에 시작 되고 또 시작이 절반이라 고 조미사이에 벌어지는 일 련의 조치들은 신뢰구축에 로 나아가는 좋은 움직임들

조미 두 나라 인민의 리익 과 인류의 념원대로 조미협

치들을 취해나갈

장이다.

장장 수십년간에 걸치는 불신과 대결의 곬을 메우는 좋은 일들로 신뢰구축의 도 로를 닦고 그 길로 조미가 함께 나아갈 때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는 보다 평온해지고 우리 민족과 인류가 바라는 평화, 번영의 새시대가 도래 하게 될것이다.

박 철 룡

남조선의 각계층 단체들 이 판문점선언리행을 위 한 투쟁에 적극 펼쳐나서

련합》,

전세계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룩한 귀중한 합의를 존중 일운동도 과거의 낡은 틀에

최근 남조선에서 진행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판문점선 언리행을 지지하고있으며 지어 《보수경향》이 강한 60대이상에서도 과반수가 북남관계개선을 지지하고있 는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재단, 원협회를 비롯한 단체들은 각종 토론회들을 열고 《새 로운 환경과 조건에 맞게 통

직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통 다. 》 고 밝혔다. 민주로총, 《한국로총》 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

고 주장하였다.

덮어두고는 미래로

통

이웃집의 초청을 받으려면 두 집사이가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 지상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초보적인 례의 범절도 모르고 이웃을 극도로 불 신하고 적대하면서 손님으로 초 청받겠다고 남의 대문을 두드리

평양행 차표를 뗴기 위해 설레 발치고있는 일본당국자들의 행태 가 바로 그러하다

최근 일본수상 아베는 매일같 이 《다음은 내 차례이다.》, 《북조선과 직접 마주앉아 주요 현안문제들을 해결할것이다.》, 《랍치문제에 대한 북조선의 큰 결단을 기대한다.》고 청을 돋구 고있다.

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없다.》, 《북조선과의 대화 그자체가 비 정상이다.》고 기염을 토하던자 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조일수뇌 회닦개최에 극성을 부리고있는데 대해 세상사람들은 아연함을 금 치 못하고있다.

물론 일본의 이 《열망》이 조 일사이의 뿌리깊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선린우호관계를 맺겠다 는 순수한 목적을 추구한것이라 면 내외의 환영을 받을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와 마주앉아 그 무 슨 《랍치자문제》를 해결하겠다 는것만 보아도 절에 간 놈 재에 는 뜻이 없고 재밥에만 눈이 간 다는 격이 아닐수 없다.

진심과 가식을 가려보는 세상 의 눈은 밝다.

다 아는바와 같이 《랍치자문 제》는 이미 지난 2002년 당시 일본수상의 평양방문과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발표를 계기로 완전 히 해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아베가 수염을 내리쓸며 이 미 해결되여 력사의 뒤길로 사라 진 《랍치자문제》를 다시 꺼내

들고 이것이 조일회담의 목적이 라고 광고해대고있다.

《상호불신을 깨고 신뢰조성을 하겠다.》는 일본식사고방식이란 바로 이렇다.

정치앞에 량심과 도의가 있고 외교우에 정의와 진실이 있다.

일본당국자들이 입만 벌리면 운운하는 《랍치자문제》로 말하 면 도리여 우리가 일본에 대고 크게 꾸짖어야 할 사안이다.

일본의 국가랍치테로범죄의 가 장 큰 피해자가 바로 우리 민족 이기때문이다.

일제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시 기에 감행된 우리 민족에 대한 랍치범죄는 오늘도 세인의 치를 떨게 하고있다.

야수적방법으로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강제련행하여 살인 적인 고역장과 전쟁판에 내몰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고가 꽃나이청춘을 무참히 짓밟고 학살한 특대형인 권유린만행들은 천만년세월이 홀 러도 지울수 없는 피멍으로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다.

전대미문의 반인륜적범죄를 저 질렀으면 반성, 사죄하는것이 도 리이고 법도이건만 일본은 아직 까지도 꼬물만 한 가책은커녕 오 히려 제편에서 그 누구의 《랍치 자문제》를 떠들며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이런자들이 그 무슨 《국민감 정》을 운운하며 《랍치자문제해 결》을 대화의 명분으로 들고나 오는것이야말로 량심도 체면도 없는 몰지각한 행위이며 우리 민 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다.

일본당국은 남을 걸고드는 허 튼 나발을 불기 전에 오늘 일본 렬도에서 특대형화제거리로 되고 불자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백주에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에 대한 유괴행위가 공공연히 벌어 지고있는것이 바로 섬나라 일본 이며 그 잔악한 범죄자들은 례 외없이 외부인이 아니라 일본사 회의 군국주의광풍속에서 야수의 독소로 길들여진 사무라이족속들

얼마전에도 우리 공화국공민으 로 가장한 한 괴한이 행방불명된 딸을 애타게 찾는 부모에게서 거 액의 돈을 털어낸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체포된 사건은 그 하나의 실례이다.

일본이 그 누구의 《랍치자문 제》에 대해 떠드는 저의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과거에 만고대죄를 저지른 가 해자로부터 《피해자》로 둔갑하 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대외 적영상에 먹칠을 하며 조선민족 앞에 저지른 죄악을 어물쩍 덮어 버리고 과거청산을 회피해보자는

일본의 아베일당이 그 무슨 《비용문제》를 내들고 자선가 흉내를 내고있는것도 마찬가지 이다.

얼마전 아베는 TV좌담회에 출 연하여 《북조선의 비핵화를 위 한 비용부담을 걸머질 용의가 있 다.》고 떠들어댔다.

이 연극이 얼마나 유치한 기만 극이였으면 일본의 전 내각관방 장관까지 나서서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조선반도의 식민 지화에 대해 사죄하는것》이라고 쏘아주었겠는가.

돈벌레의 눈에는 세상만물이 엽전구멍으로 내다보인다고 규 전을 《절대병기》로 간주하는 《경제동물》의 치사하고 비루한 속성은 어디 갈데 없다.

일본이 진실로 조일관계개선을 원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 란다면 알량한 돈주머니나 흔들 며 조선반도문제에 끼여들어보려 고 잔머리를 굴릴것이 아니라 과 거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죄악을 청산할 용단을 내려야 하며 속에 품은 칼부터 버려야 한다.

뭐니 하고있는것은 골수에 찬 군 사대국화와 재침기도에 연막을 치고 땅바닥에 곤두박힌 정치적 인기를 올려 잔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보러는데 있다는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북남. 조미대화와 더불어 대세 의 흐름이 급변하고있는 오늘 일 본이 상투적으로 써먹어온 《북 조선위협론》이 더이상 통할수 없고 우리와의 대결일변도로 계 속 나가다가는 조선반도와 지역. 나아가 세계에서 완전히 외토리 신세를 면할수 없다는것이 국제 사회의 일치한 평가이다.

더우기 일본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키고있는 모리또모학원 및 가께학원사건을 비롯한 특대형 부정추문행위로 저들에게 쏠리는 민심의 지탄과 심판기운을 딴데 로 돌려보려고 조일대화의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고있다는데 대해 서도 세인들은 예리하게 들여다 보고있다.

아베일당은 그러한 간특하고 교활한 속구구가 막다른 정치적 위기에 몰린 저들의 운명을 구원 해줄수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아 야 한다.

지금 일본은 《최대한의 압박 만이 최선책이다.》고 하던 립장 으로부터 조일대화에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만 할뿐 행동으로 보여주는것은 꼬물만큼도 없다. 일본방위상이 《북조선의 위협

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고 떠들며 지상배비형요격미싸 일체계 《이지스 어셔》를 배치 할 지역들을 찾아 싸다니고있는 것만 보아도 그 불순한 속내를 알수 있다.

《북조선위협론》을 만능처방 으로 여기며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도깨비방망이를 휘둘러 정치 적위기를 모면하군 하던 어제날의 재미를 오늘도 맛보겠다는것이야 말로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조선반도에서 불어오는 평화의

지금 아베일당이 《대화》니 훈풍에 군국주의광풍이 맥을 추

막바지

지 못하는 오늘에 와서 대조선 강경립장을 《과시》하면 인기 가 올라간다는 일본정치의 괴이 한 공식은 더는 통하지 않게 되

더우기 조선에 대한 적대시정 책을 고집하면서 동시에 조일관 계개선을 추진하겠다는것은 자가 당착의 극치로서 가뜩이나 세계 사적흐름에서 밀려난 저들의 가 련한 신세를 더욱 비참하게 만 드는 자학행위로밖에 될수 없다. 일본당국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조일사이의 근본문제가 풀리지 않고서는 백년이 가도 관계개선 이란 있을수 없다.

조일관계개선문제는 본질에 있 어서 지난날 일본이 조선인민에 게 저지른 죄행을 사죄하고 깨 끗이 청산한 기초우에서 두 나 라 인민들의 리익과 시대적요구 에 맞게 새로운 관계를 맺고 발 전시키는것이다.

조일관계개선에서의 근본의 근 본이며 전제중의 전제인 과거죄 악문제가 청산되기 전에는, 대조 선적대시정책이 선린우호정책으 로 바뀌기 전에는 그 무엇도 기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이 지금처럼 시꺼먼 속통 을 세척하지 못하고 혀바닥요술 이나 피우는것으로 평양행 차표 를 떼보려고 한다면 우리 인민의 대일적개심과 분노만을 더욱 증 폭시키게 될것이며 일본은 영원 히 가깝고도 먼 나라, 《외로운 섬》의 가련한 신세를 면치 못하 게 될것이다. 섬나라 일본이 평양문턱을 한

사코 넘어서고싶다면 력사앞에 성근하고 책임적인 자세를 취해 야 하며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대담하게 결별하여야

죄악의 과거를 덮어두고 미래 로 나갈수 없다는것을 일본당국 은 똑똑히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김연이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이 동 족대결의 분위기를 계속 고취하 고있어 각계의 저주와 규탄을 받 고있다.

얼마전 《자유한국당》을 비 롯한 보수세력들은 6.25를 계기 로 저들이 《진정한 안보정당》 이라고 자처하면서 그 누구의 《남침》을 떠들다 못해 《철저 한 대비》를 요구한다고 비린 그들은 화해분위기로 흐르는 **자네** 조선반도정세와 사고어스 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을 예정 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앙탈질 까지 하였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눈뜬 소 경들의 가소로운 추태라 하지 않을수 없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 조 선반도에는 화해와 평화분위 기가 조성되여있다.

공화국이 올해신년사에서 밝힌 애국애족적인 의지와 북 남관계발전을 위한 주동적인 조치들, 력사적인 판문점수뇌 상봉과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 은 대결과 전쟁의 기운만 감돌 던 조선반도에 화해와 평화,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 았다 우리 민족은 물론 온 인류

가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찬 성하며 그 기류가 지속되기를 바라고있다. 더우기 북남관계 를 개선하고 군사적긴장과 전 쟁위험을 해소하는데 자기들 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이 있 다는것을 보수패당의 집권기 간 똑똑히 깨달은 남조선인민 들은 이를 더욱더 절실히 요 구하였다. 그런데 《자유한국 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만 은 이를 못마땅히 여기며 여기에 정면도전하여나선것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0

세력들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이며 성의있 는 노력을 《위장평화사기극》, 《안보를 무너뜨리기 위한 화전 량면술》이라며 터무니없이 비방 중상한것도 모자라 나중에는 력 사적인 판문점수뇌상봉까지 걸고 든것은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 례들이다. 더우기 동족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줄것을 청 탁하는 《공개서한》이라는것을 미국상전에게 보내고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의 《국회》통과를 악 랄하게 가로막아나선 《자유한국 당》의 볼썽사나운 추태는 남조 선인민들로 하여금 치솟는 격분 을 자아내게 하였다.

이런것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 은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체 제를 구축하는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보수가 득세하면 북 남관계가 파괴되고 전쟁이 일 어난다. 화해의 봄을 짓밟고 평화의 길을 가로막는 《자유 한국당》을 심판하겠다고 하 면서 얼마전에 있은 지방자치 0 제선거에서 보수패당을 력사 의 시궁창에 처박았다. 《평 是 화세력이 전쟁세력을 심판》 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혼쭐 이 났으면 잠자코 가만히 있 을 대신 《자유한국당》이 6. 25를 계기로 또다시 동족대 결의 나발을 불어댔으니 그들 이야말로 동족대결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는 반역무 리들이 틀림없다.

> 평화와 번영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고 념 원이다. 대결과 전쟁위험을 끝장내

고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와 노력으로 조선반도에서는 시대가 바뀌 고 분위기도 변화되였다. 그 런데 《자유한국당》을 비롯 한 보수세력들은 화해의 봄 으로 마련된 현실을 외면한 채 동족대결의 두툼한 솜옷 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 《안 보》 타령과 같은 케케묵어 구 린내나는 잡소리만 줴쳐대고

있다. 이런자들이 푸른 하늘아래 이 땅에서 살아있는것자체가 민 족의 수치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

수세력들이 조선반도에 도래한 평화기운을 가로막고 동족에 대 한 적대의식을 고취하며 최후발 악하지만 오히려 그것은 제 손 으로 저들의 목에 걸린 올가미 를 더욱 조이는 결과만 빚어낼 것이다. 본사기자 김 응철

초상난 집에 불란리가 났다. 얼마전 남조선지방자치제선 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자유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 들이 계화간 서로 옥신각신 하면서 개싸움질에 열을 올 리고있다

주되는 쟁점으로 떠오른것 이 《재건》과 《혁신》문제 이다.

《자유한국당》의 비박근 및 재선의원파 혜파와 초선 가 당을 《혁신》하려면 수 구적보수리념을 《합리적 인 진보와 개혁적보수》로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정책쇄신》을 주장하 자 복당파(《바른미래당》 탈당세력)는 선거패배는 무 능때문이지 로선때문이 아 니다, 리념을 건드리면 가 만두지 않겠다고 반발해나 서고있다.

한편 비박근혜파와 초선의 원들은 친박근혜파와 중진의 원들의 정계은퇴를 통한 《세 대교체》, 《인적청산》만이 당을 건질수 있다고 주장해나 다고 발버둥치고있다. 서고있다. 이에 맞서 친박근

혜파와 중진의원들은 비박계 가 당이 위기에 빠진 기회를 리용하여 당권을 장악하려 하 고있다고 들고일어나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당내 일부

전, 현직 당원협의회 위원 장들의 모임인 《자유한국 당재건비상행동》은 얼마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풍운 동》(그릇된 풍조를 바로잡

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 면서 1차적인 《정풍》대상 자들로 선거패배에 책임있 는 김성태, 최경환 등 10여 명의 인물들을 발표하고 그 들의 정계은퇴와 《총선》 불출마를 주장해나섬으로 써 당내갈등은 더욱 격화되 고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함 께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 고 대참패를 당한 《바른미 래당》도 잔명을 유지해보겠

《바른미래당》은 선거참 있지 않다.

개혁적보수》를 표방한 당의 정체성이 모호했기때문이다, 당을 《민생정당》, 《미래 개혁정당》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등 엇갈린 이런저런 목 소리들을 내면서 민심을 또 다시 기만해보려 하고있다. 또한 《자유한국당》 과의 정

패원인이 《합리적인 보수와

책차별화로 민심을 얻어보 것은 민심을 기만하여 살길

러 하고있다. 《안철수의 색 갈》 지우기에도 나서고있다. 안철수의 **《**새 정치**》**실험은 안철수의 정계은퇴를 강하게 요구하고있다.

력사의 준엄한 징벌을 받 은 산송장들이 가련한 운명 을 건져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역겨운 추태는 민심의 더 큰 환멸만 자아내고있다. 망해가는 《자유한국당》 이나 《바른미래당》의 비참 해진 운명은 다른데 원인이

에 지나지 않는다.

바로 사대매국과 동족대

그런데도 이번 선거패배에

《자유한국당》이 《재

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대

건》과 《혁신》의 간판밑에

《로선변경》을 떠들고있는

결, 반인민적악정과 부정부

패가 그들을 운명의

에로 몰아가고있다.

신

읔

지금 《자유한국당》내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하면서 서는 당명을 교체하고 보수 신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당의 간 판을 뜯어고치고 새로운 감 투를 쓴다고 해도 사대매국 과 동족대결, 반인민적악정 과 부정부패 등 역적당의 고 질적악습만은 고칠수 없다. 그것은 력대 보수패당의 변 신행적과 더러운 죄악들이 증명해준다.

또 《인적청산》, 《세대

교체》 놀음으로 선거패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당권 을 장악하려 하지만 그런다 고 달라질것이란 하나도 없 다. 망해가는 역적당에 스스 로 찾아들어갈 사람은 어디 에도 없으며 있다면 민심의 버림을 받은 정치철새들뿐일 것이다. 《바른미래당》이 《자유

한국당》과의 정책차별화. 색갈》 지우기에 나서는것도 기울어지는 운명 을 건져보려는 필사의 몸부 림일뿐 이미 민심의 버림을 받은 역적당의 영상이 개선 될수도 없다.

평화와 통일의 원쑤, 진보 와 사회발전의 암덩어리인 보수역적당의 본태는 절대로 변할수 없다.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도, 사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 서도 《자유한국당》을 비롯 한 낡은 정치세력들을 정치 무대에서 영원히 추방해버려 야 한다는것이 지금 남조선 민심의 한결같은 요구이다. 본사기자 김 련 옥 대정본부가 시청앞에서 판 문젂선언의 리행을 요구하 는 대전지역로동자선언운동 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총

졌다. 모임에서 민주로총 대전본 부 본부장은 판문점선언에는 로동자들이 바라던 평화통일 의 시대정신이 명확하게 담 겨있다고 하면서 북남수뇌상

간절히 바라는 민중의 념원 을 풀어주는 력사적인 사변 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올해 8.15까지 대전지역 로 동자들을 대상으로 서명활동 형태의 로동자선언운동을 전 개할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한 법과 제도개선투쟁에 나 로조 대전지방본부도 로동자

판문점선언을 지지하는 서명운동 선포

봉과 회담은 평화와 통일을

서명문건에는 《판문점선언 지지》. 《대전로동자 앞장 서서 조국통일 이룩하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 로 영구적인 평화시대 만들 자.》. 《분렬적폐청산을 위 설것을 선언한다.》 선언운동에 적극 참가할 의 용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로동자선언운동과 관련한



심의

아직도 대결시대에 사는

지금 온 겨레는 물론 전 세계가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환 영하며 그것이 공고한 평화 와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절 절히 념원하고있다.

이러한 때에 남조선보수언 보수언론들이다. 론들은 과거의 대결악습을 버 리지 못하고 악의에 찬 억측과 외곡선전으로 조선반도정세완 을 끼얹는 망동으로서 북남 비롯한 악질보수언론들은 대 화의 흐름에 역행하고있다.

들은 조미공동성명을 고약하 술궂은 속내를 그대로 보여 게 헐뜯어대면서 《철저한 검 주고있다. 증, 불가역적원칙이 반영되지 못했다.》, 《구체적인 비핵 게 보도하는것은 언론의 생명 화로정도와 시간표도 없다. 》 등의 궤변으로 력사적인 조미 수뇌회담의 사변적의미를 깎 아내리려고 악을 써대고있다.

그런가 하면 북남, 조미, 조중사이에 진행된 수뇌회담 들에 대해서도 헐뜯고 그 무 슨 《시간끌기》니 뭐니하며 비중상하고있다.

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서 도 《북과 중국만 리득을 보 고 〈안보〉불안은 더 커졌 다.》, 《〈한미동맹〉이 입 게 될 피해는 막심할것》이 라고 떠들며 아부재기를 친

참으로 온 세계가 지지찬 동하는 정세완화흐름에 찬물 관계개선과 조선반도평화와 최근 《조선일보》, 《문 안정의 분위기를 달가워하 화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지 않는 악질보수언론의 심

> 진실을 객관적으로 공정하 이다. 언론이라면 마땅히 공 정하고 진실하게 사회를 담론 것은 남조선민심에 대한 용 하고 정세를 평가해야 한다. 돌이켜보면 북남관계가 오 래동안 불신과 대결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데는 남조선보

수언론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극악한 동족대결정책을 실 공화국의 평화애호노력을 시 시했던 이전 리명박, 박근혜 여 차례지는것은 민심의 준 《정권》하에서 남조선의 보 엄한 심판뿐이다.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수언론들이 어떻게 6.15공동

선언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헐뜯고 동족대결을 집요하게 고취하여왔는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 대결의 앞장에서 날뛰였

던 박근혜, 리명박이 련이어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 을 받고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지금도 《조선일보》를 결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못되게 놀아대고있는것이다. 구태의연한 대결관념에 사

로잡혀 터무니없는 억측과 모해로 혀바닥이 돌아가는대 로 마구 떠들며 높아가는 조 선반도평화와 안정분위기에 부정적여론을 조성하려 하는 납 못할 우롱이며 모독이다.

남조선의 보수언론인들이 온갖 모략기사들로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얹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 정을 해치려 한다면 그로 하

금전에 밝은 일본이 확실 히 정치적사리에는 밝지 못 하다.

일본은 제 할바를 바로 알아야 한다

얼마전 일본수상 아베는 어 느 한 텔레비죤좌담회에 출 연하여 《북조선의 비핵화를 위한 비용부담을 걸머질 용 의가 있다.》 느니 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대세에 역행하여 대조선압 박일변도를 끈질기게 고집해 온 일본이 지금 자가당착에 빠져 허우적대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 일의 본말이나 선후차를 가리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조일관계에서 기본은 예나 였다. 지금이나 과거청산이다.

지난 세기 조선을 비법강 점한 일제의 식민지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이미 제 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해결되였어야 할 력사적과제 이며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도덕적책임이다.

그러나 일본은 패망후 반 본사기자 서 희 세기가 훨씬 지나도록 피비

린 과거죄악에 대해 사죄도 청산도 하지 않고있으며 도 리여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 갑하는 정치사기극을 연출하 고있다. 일본이 케케묵은 《랍치문

제》를 집요하게 떠들고있는 것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특대형범죄를 가리우고 과거 청산을 회피해보려는 부질없 는 모지름에 불과하다. 얼마전 일본의 전 내각관

방장관 고노 요헤이는 도교 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지 그러나 제 처지가 바쁘다 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조선 반도의 식민지화에 대해 사 죄를 하는것》이라고 언급하

자타가 공인하는 리치를 두고 아베정권은 왜 한사코 모르쇠를 하는가. 일본은 돈푼이나 흔들어대

면서 잔꾀를 부릴것이 아니 라 성근한 자세로 나와 과거 청산부터 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일관계개선의 핵 심이다.

본사기자

임을

피할수 없는 숙명의 비극이

(시)

보수의 숨통에 비수처럼 박혀든 날 6월 13일 락조가 비낀 보수진영에서 터져나오는

아우성소리 비명소리 그것은 초상집의 구슬픈 곡성인가

그리도 기고만장 살기등등하던 서슬푸른 기세 어디다 줴버렸는지 더운물에 데쳐진 후줄근한 배추잎마냥 대참패를 당해 얼이 나간 보수꼴통들 깨여져나간 《보수의 신화》 그 페허 우에 서

《반성》과 《사죄》의 참회를 한다누나

아무리 무릎꿇고 엎드려 조아린들 동정의 눈길은 남녘의 그 어디에도 없다 속을대로 속아왔고 우롱을 당한 남녘의 민심은 똑똑히 안다 그 《반성》은 살길 찾는 보수의 《술책》

보라, 물어뜯는 보수의 본성 갈데 없거늘

김 태 룡

1

H

선거패배의 책임 서로 넘겨씌우며 추악하게 놀아대는 산송장들의 몰골들 다같이 무덤에 묻혀야 할 처지이건만 먼저 들어가라 서로 순서를 매겨대는 꼴 으르렁대는 싸움질은 기가 죽지 않았 구나

민싞을 등지고 파국만을 몰아온 악행 한사코 동족대결의 살풍만을 몰아온 죄 악

남녘의 겨레는 결단코 용서치 않았으니 아무리 발버둥질쳐봐라 너희들 운명은 이미 죽음을 선고받았다

그 무슨 사죄 열백번 한들 소용이 없고

서로 악을 쓰며 물고뜯어본들 소생의 앞날, 미래란 없다 동족대결과 전쟁을 바라는 너희들에게 천만민심은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다

음악예술인재양성의 원종장,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인들의 따사로운

라의 음악예술인재양성의 원 종장인 김원균명칭 음악종 되였다고, 수령님께서 해방 합대학이 자리잡고있다. 근 70년의 력사를 자랑하는 이 곳 대학에서는 수많은 예술 인후비들이 재능의 꿈과 나 래를 활짝 펼쳐가고있다.

얼마전 김원규명칭 음악종 합대학을 찾은 우리와 만난 대학의 한 일군은 《대학의 교육사업에서 이룩된 눈부신 성과들에는 음악예술인후비 육성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우리 대학을 주체적 음악예술교육의 전당으로 강 화발전시켜주신 절세위인들 의 현명한 령도가 깃들어있 다.》 고 하면서 대학이 걸어 온 자랑찬 로정을 감회깊이 더듬었다.

38(1949)년 3월 1일에 창립 후 어렵고 복잡한 속에서도 각지에 흩어져있던 재능있는 예술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시여 유능한 교원집단을 무 어주시고 귀한 자금을 들여 마련한 악기들과 수집한 음 악도서들도 보내주시여 우리 나라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예술인후비를 키우기 위해 서는 음악대학사업을 개선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이 사 업에 큰 힘을 넣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교육에 서 주체를 튼튼히 세워 모 든 학생들을 음악예술의 대 를 이어갈 후비대로 키워 야 한다고. 세계를 들었다

음악교육의 전당이 마련될수

악가수도 바로 음악대학에 서 나와야 한다고 가르쳐

이곳 대학을 예술인후비를 키워내는 원종장이라고 하시 며 대학의 교육사업을 개선 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기울 이신 어버이장군님이시다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자면 천성적인 소질과 교육의 비 중을 옳게 정해야 한다고 하 시며 교육을 보다 체계화, 정규화하도록 이끌어주신 그이의 령도의 손길이 있어 대학이 오늘과 같은 나라의 믿음직한 음악예술인후비양 성기지로 전변될수 있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새 세기 의 요구에 맞게 대학청사를 현대적으로 일떠세울것을 발 기하시고 최상의 수준에서 의 숭고한 사랑에 떠받들려 대학이 예술교육의 전당으로 솟아날수 있었다.

대학의 명칭에도 그이의 높으신 뜻이 깃들어있다.

주체95(2006)년 5월 음악

예술의 전당으로 훌륭히 일 떠선 이곳 대학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대학 의 명칭을 불멸의 혁명송가 《애국가》를 창작한 김원균 선생의 이름을 달아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당시)으 로 부르도록 해주시였다.

음악예술교육사업에 쌓아 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대학을 새 세 기의 요구에 맞게 종합대학 으로 개편하도록 하시고 대 학교육사업의 목표와 방향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나 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 주체 놓는 재능있는 독주가, 성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신 그이 방도를 환히 밝혀주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더 욱 빛을 뿌리고있다.

> 이렇듯 절세위인들의 현명 한 령도가 있어 이곳 대학 의 졸업생들이 모란봉악단 향악단, 만수대예술단을 비 롯한 이름있는 예술단체들에 서 명성을 떨치고 여러 국 제콩클들에서 입상하는 자랑 찬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던

하기에 김원균명칭 음악 종합대학을 돌아보면서 우 리는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절세위인들을 대를 이어 높 이 모시여 주체음악예술의 미래는 끌없이 밝고 창창하

본사기자 홍범식

고 과 교원들가운데는 뛰여난 예술적재능 으로 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이름있 는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 성악배우들 이 많다.

김원균명칭 음악

종합대학 졸업생들

이 대학의 2기졸 업생인 허재복은 섬 세하고 매혹적인 지 휘로 음악무용이야 기 《락원의 노래》 를 비롯한 수많은 음악작품들을 훌륭 히 형상창조한 이 름있는 지휘자였다.

그는 제7차 세계청

년학생축전에 참가

하여 무반주합창

《법성포배노래》 를 지휘형상한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 에서의 대외공연활동을 통 해 주체예술의 위용을 남김 없이 과시하는데 크게 기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과 《꽃파는 처녀》,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예술영 화로 옮기는 창작사업에 참 가하여 영화음악창작을 맡아 하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의 노래》, 《수령님은 인민 들과 함께 계시네》와 같은 위인칭송의 송가들과 《최학

신의 일가》, 《금희와 은희 의 운명》, 《첫 무장대오에 서 있은 이야기》 등의 영화 음악들을 창작한 작곡가 리 학범도 이 대학의 작곡학부 졸업생이다. 그가 창작한 음 악작품들은 철학적사색을 불 러일으키는 깊이있고 풍만한 정서와 아름답고 부드러운 선률로 하여 오늘도 사람들 의 기억속에 남아있다.

혁명영화 《조선의 별》에

서 《동지애의 노래》와 같 은 특색있는 영화음악작품들 과 노래 《조선은 하나다》 를 창작한 김일성상계관인 이며 인민예술가인 성동춘,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 아》, 《우리 장군님 제일이 야》를 비롯한 100여편의 가 요. 기악곡들을 창작한 작곡 가 리종오, 혁명가극 《피바 다》를 비롯하여 가극작품창 작에서 뛰여난 재능을 보여 준 송석환, 예술영화 《자신 에게 물어보라》의 주제곡을 창작한 서정건, 《누가 나에 게 가르쳤던가》를 창작한 고수영도 이 대학의 졸업생

이 대학의 졸업생들가운데 는 인민의 사랑을 받은 성악 가들도 많다. 그들가운데는 가요 《오직 한마음》, 《바 다의 노래》 와 같은 노래들 을 훌륭히 형상하여 민요독 창가수로 널리 알려진 인민 배우 김옥선, 《번영하여라

로동당시대》를 비롯한 많 은 가요들을 훌륭히 형상한 인민배우 손대원, 가요 《동 지애의 노래》를 비롯한 수 많은 영화주제곡들을 형상한 인민배우 김승연도 있다.

인민배우 조금화와 특색있 는 목소리로 가요 《정일봉 의 우뢰소리》, 《장군님 백 마타고 달리신다》와 같은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한 인 민배우 렴청 그리고 인민배 우 황은미도 대학이 자랑하

는 졸업생들이다. 뿐만아니라 조청미, 조혜 경, 리성철, 허광수와 같은 많은 배우들은 이미 재학시 절에 챠이꼽스끼명칭 국제성 악콩클을 비롯한 국제음악경 연들에 입선하여 자기의 재 능을 남김없이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밖에 많은 기악곡들을 연주형상한 인민배우 신률. 녀성기악증주 《문경고개》 와 《장군님이 그리워》를 비롯한 수많은 기악중주곡들 을 훌륭히 연주형상하여 널 리 알려진 최향길과 같은 우 수한 연주가들이 현재 대학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리치고

이처럼 훌륭한 전통을 가 진 대학에서 오늘도 수많은 학생들이 주체예술의 래일을 떠메고나갈 훌륭한 인재들로 준비해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남

백고산

에서는 재능있는 예술인재 후비들을 훌륭히 키워내고 있었다. 있다.

우리는 성악학부 강의실에 들렸다. 그곳에서는 《그네 《모란봉》 을 비롯한 수많은 민요작 훌륭히 형상하여

생들에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게 노래를 돋구는 독특한

학생들은 맑고 선명하고 부드러우며 고울뿐아니라 후 력하게 내는 발성법을 가르 치는 최청희교원의 지도를 받으며 악보에 그려진 음을 골격으로 하면서 거기에 다 양한 형태의 미분음을 넣고

성악기교를 습득하는데 여념

이 없었다.

이어 우리는 민족기악학부 로 걸음을 옮기였다. 그곳에 서는 지도교원과 함께 학생 들이 《바다 만풍가》를 연 주하고있었다.

학생들이 연주하는 노래의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공혼배우 최청희교원이 학 섬세한 굴림을 써서 감칠맛 건드러진 멋과 홍취는 절로 이야기해주었다. 어깨를 들썩이게 하였다.

> 동행한 최경철교원은 지난 기간 많은 기악작품들을 형 상한 신률교원을 비롯한 유 능한 교원들의 지도밑에 연 주기법과 형상을 무르익혀온 학생들이 2.16예술상 개인경 연을 비롯한 경연들에서 우 수한 성적으로 입선하였다고

그뿐이 아니였다. 로씨야

에서 진행된 국제성악 및 기 악콩클-축전 《대도시의 별 들》에서 1등, 제1차 벨랴꼬 브컵 국제바얀, 손풍금콩클 에서 특등을 쟁취한 전영주 를 배출한 양악기악학부에서 도 전도양양한 연주가후비들 을 키워내고있었다.

유능한 작곡가, 지휘자들 을 키워내기 위해 창작적재 능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 여 작곡학부에서 공부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김영숙교원은 우리를 안내하였다.

우리가 들린 강의실에서 는 안광철교원이 학생들의 인식속도를 높여주기 위하 여 창안한 교수방법이 구현 된 다매체강의가 진행되고있 었다.

강의가 끝난 후 우리는 여 러 학생들을 만났다.

리학성, 김호현, 정진아학 생들은 조국의 영예를 펼쳐 갈 우수한 예술인재로 자라 날 결의를 피력하였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우리의 귀전에는 전도양양한 예술인재후비들이 울리던 노 래소리, 기악소리가 오래도 본사기자 현은경

















두차례의 력사적인 판문 점수뇌상봉과 회담으로 민 족적화해와 평화번영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지금 온 겨레는 크나큰 격동과 환희에 넘쳐있다. 마음속 에 묻고 살아온 통일소원 을 이룰 그날을 그리며 날 과 날을 흥분속에 보내는 사람들중에는 평양산원 원 장으로 일하고있는 김성희 선생(62살)도 있다. 북과 남, 해외에 널리 알려져있 는 그는 최고인민회의 대 의원이며 조국통일범민족 원이기도 하다.

첫 통일동이에 대한 추억

표될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 지 눈물이 다 났습니다.》

그때의 감격이 되살아나는듯 하는 일입니까. 6.15시대 상기된 표정으로 이렇게 말 가 다시 온것만 같은 심정 하였다. 조선사람이라면 누 입니다.》 구나 통일을 갈망하고 갈라 져선 못살 하나의 민족에 대 해 이야기한다. 범민런 북측 레에게 기쁨을 주지 않았습 본부 위원인 김성희원장도 니까?》 례외가 아니다.

해를 민족사에 특기할 사 변적인 해로 빛내일데 대한 대〉 황선녀성이 평양산원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신년사를 여난 애의 이름이 윤겨레인 들으며 통일에 대한 희망 니다. 그후 북과 남의 선수 니다.》 들이 통일기를 휘날리며 겨 울철올림픽개막식장에 공동 입장하고 녀자빙상호케이선 수들이 단일팀을 무어 경기 리 민족은 하나의 언어, 하 는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판문점에서 력사적인 보러 평양으로 달려오던 때



런합(범민런) 북측본부 위

《력사적인 4.27선언이 발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 행되는 특대사변이 런이어 일어났으니 이 얼마나 우 기자와 만난 김성희원장은 리 모두의 가슴을 벅차게

> 《참, 그때 평양산원에서 첫 통일동이가 태여나 온 겨

《예. 생각할수록 감회가 《뜻깊은 설날아침에 올 깊습니다. 2005년 10월 10일 밤 10시 남조선의 〈통일련 서 딸을 낳았지요. 그때 태 데 이제는 13살이 되였을겁 으로 가슴이 부풀어올랐습 니다. 퍽 컸을텐데 보고싶습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추 억하지만 그때는 산모가 위 급한 상황이였던지라 초긴장 상태였다고 그는 추억을 더 에 출전하는것을 보면서 우 듬었다. 2005년이면 6.15가 놓아준 《통일오작교》를 넘 나의 피줄을 가진 한겨레라 어 남조선의 수많은 각계층 인민들이 인기있는 대집단체 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다운 정

평 얏 산

해산예정일을 한주일 앞둔 만삭의 몸으로 시부모들과 함께 평양에 온 남녘의 황 선녀성은 도착한 날부터 평 양산원 의료일군들의 관심속 에 있었다. 공연이 진행되는

였다.

5월1일경기장 바깥에는 평양 다.》 산원 구급차가 비상대기하고 있었고 그의 량쪽에는 김성 희원장과 의사선생이 앉아 그에게서 한시도 눈길을 뗴 지 않았다. 그러던중 갑자기 진통이 와 평양산원으로 옮

겨졌다. 《그때 산모의 상태는 좋 지 않았습니다. 한해전 맏 딸출산때 수술자리가 안에 서 터진 위급한 상황이였습 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산모 와 어린애 모두 잘못될수 있 었지요.》

그때 김성희원장이 직접 수술장에 들어가 전 과정을 지도했다. 황선녀성이 서울 로 돌아간 후 그의 수술부위 를 본 산부인과의사는 정말 꼼꼼히 잘 했다고 감탄했다 고 한다.

황선녀성은 평양에서 통일 옥동녀를 낳은 감격을 담아 평양산원창가에서 이런 시를 읊었다.

너의 고향은 평양이란다 6.15 축복받은 서울의 평양아이야 무엇보다 6.15를 닮거라

불가능이 없단다

《이것은 황선녀성만이 아 니라 6.15의 혜택속에 조국 통일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 는 남녘겨레의 진정이였습니

그때 황선녀성은 물론 그 의 시부모들은 공화국의 무 상치료제의 혜택과 평양산 원 의료집단의 성의있는 방 조에 크게 감동되여 돌아갔 다고 한다.

김성희원장은 첫 통일동이 의 출생확인서를 자신이 직 접 뗴주었는데 태여난 곳을

평양산원이라고 쓸 때의 감 정은 한두마디 말로 표현할 가 태여난것은 평양산원의 수 없었다고 한다.

들 의 녀 성 김성희원장은 평양산원이 평양산원 의사로 일할 때 생겨 두번째로 원장사업을 해오고있다. 1980년 당시 평 양의학대학 림상의학부를 졸

랜 보건일군이다. 뛰여난 전문실력과 오랜 의사경험은 그가 원장사업 을 맡아하기에 손색이 없 었다.

김성희원장이 대학졸업후

《6.15시대에 첫 통일동이 자랑입니다.》

리면상

친정집》

전쟁시기 간호원이였던 그 의 어머니는 보건일군은 실 력도 높아야 하지만 인간에 업한 그는 지금까지 38년간 대한 사랑과 정성으로 환 평양산원에서 일하고있는 오 자들을 돌봐야 한다고 늘 일깨워주었다. 그는 30여년 간을 평양산원에서 일하면 서 공화국의 인민적보건시 책에 대해 페부로 체험하 였다.

《산원에 와서 비행기를

는것은 공화국에서 평범한 일로 되고있다.

특히 나라가 어려웠던 고 난의 행군시기에 산모를 위

많이도 탔습니다.》

리군 하였었다. 세쌍둥이, 네쌍둥이임신

부가 있는 곳이라면 산간 재해지역 한명의 산모를 위 해 직승기가 나는 현실을 직 접 겪으면서 이 세상에 이 런 나라가 또 있을가 하며 깊은 감동에 잠기군 하였다 고 한다.

《그뿐입니까? 산모들

은 꿀과 미역은 물론 갖가 과 애기기저귀, 애기물수건 에 이르기까지 제일 좋은것 의 동백꽃, 도라지꽃, 은행 나무잎 등을 새긴 천연보석 바닥을 밟으며 우리 평양산 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아 이를 낳고 건강한 몸으로 집 으로 갈 때까지 녀성들이 받 마디 말로 다 설명 못합니 다.》

몇해전에는 평양산원에 유 선종양연구소까지 세워져 녀 성들의 유선증과 유선암까지 도 미리 예방하고 조기에 적 발하여 치료해줄수 있게 되 였다

녀성들에게 돌려지는 사랑 과 배려를 온몸으로 느끼며 김성희원장은 이 고마운 제 불태웠다.

그는 입원환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진행하는 속에 산모를 위해 비행기가 나 서도 여러 부문의 녀성들 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현 장의료봉사활동을 짜고들 도록 하였다. 현장치료대 를 뭇고 김정숙평양방직공 해 사랑의 비행기가 날았을 장,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 때에는 그도, 산모의 고향사 소 등 여러 단위에 파견하 람들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 여 녀성들에 대한 진단과 치료. 의학과학기술강의도

진행하였다. 《우리 녀성들이 평양산원 오지 그 어디라도 찾아가고 을 가리켜 (친정집) 이라 정담아 부릅니다. 그 부름속 에는 이렇듯 훌륭한 병원을 세워준 나라에 대한 고마움. 훌륭한 인민적시책을 마련해 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감 사의 정이 담겨져있다고 생 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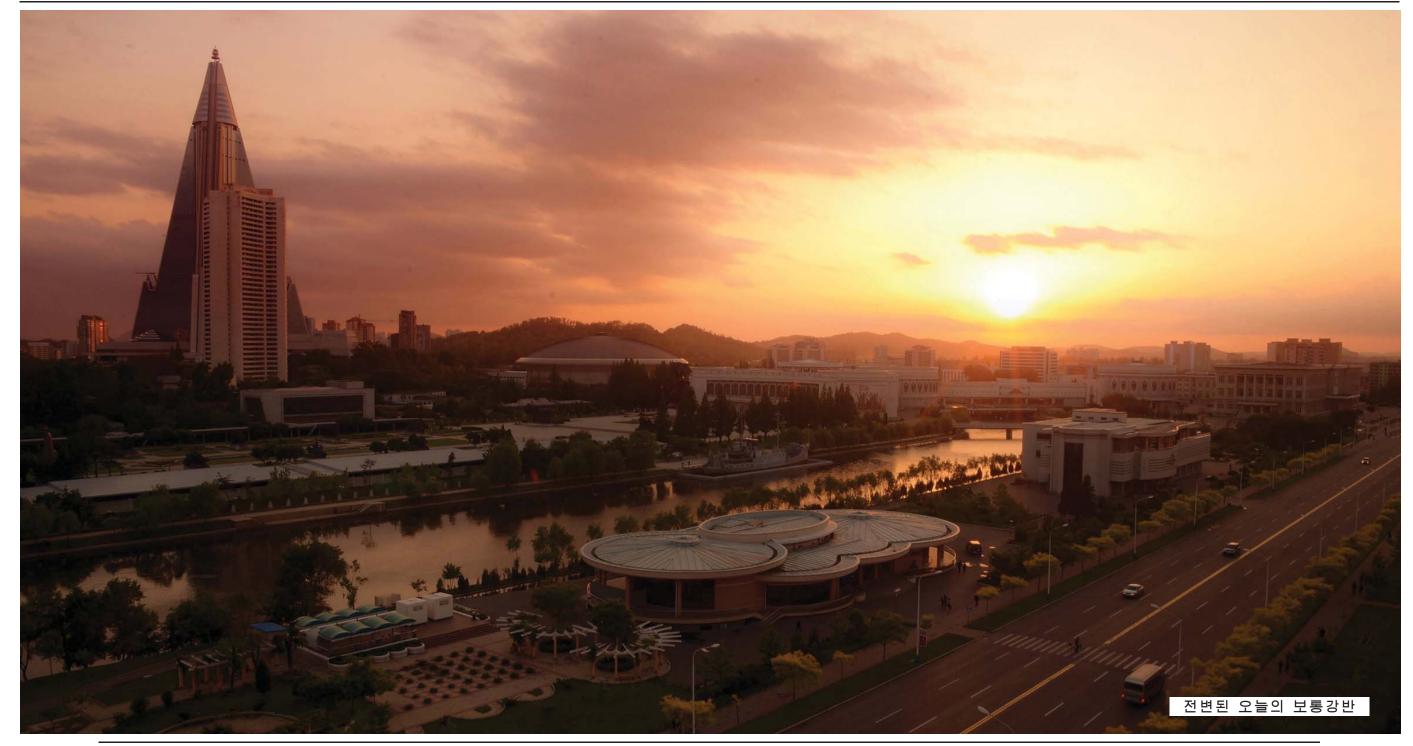
문득 평양산원을 돌아보고 지 보약을 공급받고 애기옷 쓴 외신보도자료의 한 대목 이 떠올랐다.

《다른 나라에서는 녀성 으로 받아안습니다. 중앙홀 들이 1만US\$가 있어야 안 전하게 해산할수 있다. 그 러고보면 지난 30여년간 평 양산원에서 태여난 어린이 출생을 위해 바친 해산방조 비는 72억US\$를 넘는다.》

지금껏 수많은 녀성들 아안는 국가적배려는 한두 이 평양산원에서 아기를 낳 고 병치료를 받았지만 해산 비, 치료비란 말조차 모르 고있다.

하지만 《친정집》이라는 정다운 부름과 더불어 사회 주의제도에 대한 고마움은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을것 이다. 그러면서 김성희원장 은 지금의 북남관계개선의 흐름이 더욱 빨라져 평양산 원이 북남녀성들의 《친정 도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 집》으로 불리울 날이 하루 여야겠다는 일념으로 가슴을 빨리 오기를 바란다며 밝게 웃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조선식지붕양식은 오랜 력 사를 가지고 오늘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우아하고 아름 다운 곡선미로 특징지어지 는 전통적인 지붕형성양식 이다.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때부 터 기와를 이은 여러가지 류 성적요구에 따라 그 형태를 다. 과거 조선식지붕의 지지 형의 고유한 조선식지붕이 다양하게 결합하기도 한다. 구조는 많은 경우 나무로 하 있었다. 그것은 고구려벽화, 지붕구조는 일반적으로 도 고 진흙, 삼화토, 석회 등으 세나라시기의 건축물, 벽돌 리, 대공, 대들보, 서까래 로 진새를 치였으며 지붕마 에 새긴 건축물의 무늬들을 등으로 이루어진다. 통하여 확증할수 있다. 세나 더욱 세련되고 지붕장식이 경쾌한 가벼운 곡선으로 이 발전하였으며 지붕면의 표면 재료인 기와의 품질도 더욱 한 조선식건축물의 지붕처마 개선되였다.

조선식지붕은 그 모양에 로 이루어진다. 따라 배집지붕, 우진각지붕, 합각지붕, 모지붕, 특수형지 붕 등으로 나눈다. 배집지붕 은 단순한 형태를 가진 두 면경사지붕이고 우진각지붕 은 네면경사지붕, 합각지붕 은 조선식건물에서 4면경사 지붕우에 두면경사지붕이 놓 여 하나로 된 지붕이다.

조선식지붕양식

조선식지붕은 일정한 경사 라시기이후 지붕건축양식이 를 가지고있으며 지붕처마는 루어졌다. 배집지붕을 제외 는 안우리곡선과 조로곡선으

조선식지붕에는 여러가지 장식을 하였다. 룡마루량끝 에는 고구려를 비롯한 세나 라시기, 후기신라와 발해 때 에는 치미로, 고려, 조선봉 건왕조시기에는 추두와 룡두 로 장식을 하였다. 또한 박 공마루아래부분에는 역시 룡 두를 놓아 장식을 하였다.

조선식지붕은 기능적, 형 기와도 장식기와를 많이 썼



지붕에서는 지지구조를 철근 콩크리트부재, 강철트라스 등을 리용하여 보다 오래 견 디도록 한다.

선조들이 창조한 우수한 문화전통을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에서는 조선식지붕양 식을 살리면서도 보다 현대 적이고 민족적미감에 맞는 건축물들을 훌륭히 일떠세우

최근 공화국의 민족유산보 호지도국에서 2개의 대상을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새 로 등록하였다. 강원도 판교군 사동리에서

발굴된 광복사터가 국보유적 으로 등록되였다. 사동리소재지에서 동북쪽 로 고증되였다.

으로 2km정도 떨어진 골안 에 있는 사찰터는 기본면적 지금까지 발굴된 고려시기 원동벽화무덤은 평양시 삼석

지자기현상은 지구를 둘러 싼 지구자기마당이 태양을 비롯한 여러 인자에 의하여 변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지 지구의 자기마당속에서 살 자기현상이 일어날수 있는 아오면서 그에 적응되였기 동의 변화에 민감하기때문에 날들을 지구물리학적으로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자 지자기폭풍과 같은 외적작용 불리한 날이라고 한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 히 발전하고있는 오늘 영향을 미치며 특히 지 구에 살고있는 생물체에 영향을 미친다는것이 새롭게 해명되였다. 태양의 자기마 당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강화되였다가 약화되면서 사

하여 고려시기였던 11세기경 대의 기본정전인 회경전본 의 유적이라는것이 학술적으 전보다도 그 길이가 훨씬 력사유적들을 새로 등록

자료들과 건물배치, 발굴과

정에 나타난 유물들에 근거

이곳의 금당터, 강당터는 이 1만 7 000여㎡이며 력사 사찰유적의 금당터와 강당 람을 비롯한 생명체들의 생

물률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사람은 오래동안

지 자 기 현 상 과 날 태양이 지구물리학적현상 기마당현상에 대하여 그 어 에 의하여 피점도가 높아지 특히 지구물리학적으로 떤

> 않는다. 그러나 허약한 사람들과 로인들 특히 심장판막장애, 심근염, 협심증, 고혈압을

고 피흐름속도가 떠지면서 혈전이 생길수 있다. 또한 심장병이나 고혈압이

악화되고 심한 경우에는 뇌 졸중이 발생할수 있다. 비롯한 순환기계통과 신경쇠 그러므로 순환기계통과 신

발굴당시 무덤칸의 네벽에 는 모두 벽화흔적이 있었으

장수원동벽화무덤은 고구

지구물리학적으로 불리한 날의 전날 저녁에는 식사후 45분정도 지나서 한시간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불리한 날에는 아침체조와 업간체조를 하고 식사를 제 시간에 적당히 하며 명랑하 게 일하고 즐겁게 생활해야 한다.

단편소설

김 정 설, 그림 리 성 일 글

단군이 평양에 도읍을 정 하고 고조선을 세운지 몇년 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였다. 이날 단군은 여러날동안 사냥으로 열지 못하였던 정 사모임을 열었다.

단군은 매해 들에서 곡식 을 거두어들이고 산과 들에 살찐 짐승들이 뛰노는 가을 철마다 의례히 나라의 주요 한 관리들을 이끌고 교외에 나가 며칠동안 사냥을 벌리 군하였다.

이날 나라의 주요 신하들 이 모인 정사모임에서 사냥 기간에 쌓인 나라의 여러 문 제들을 처리하고 앞으로 해 야 할 일들을 의논하였다.

모임이 끝날무렵에 단군은 5가들의 반렬에서 맨 앞자리 에 서있는 마가인 신지에게 눈길을 멈추었다.

모든 관리들은 얼굴들이 검실검실하고 몸에는 탄력 이 있어보였으나 신지만은 얼굴빛이 새하얗고 후리후리 한 몸은 후줄근한데다 구부 정한것 같아 기운이 없어보 이였다.

신지의 이런 모습을 보는 단군의 마음은 측은하였다. 신지만이 이번에도 사냥에 따라나서지 못하였다. 그러 니 신지는 나라가 세워진 이 래 단 한번도 사냥에 나서지 못한것이다.

신지가 이렇게 사냥에 한 번도 따라나서지 못하게 된 것은 신지가 맡고있는 마가 의 직책때문이였다.

마가의 직책은 임금의 지 시를 받아 아래에 전하고 또 아래에서 올라오는 모든 일 을 받아 임금에게 아뢰는것 이였다. 당시까지 글자가 없 은것으로 하여 마가는 임금 의 지시나 아래에서 보고되 는 모든것을 머리에 다 기억 하고있다가 전하여야만 했 으므로 더구나 궁궐을 뜰수 없었던것이였다.

신지를 한동안 내려다보던 단군은 조용히 말했다.

《마가, 그대 내 말을 듣

거라.》 《네. 듣소이다.》

《그대가 이번 사냥에도 따라나서지 못한것은 참 미 안스럽게 된 일이로다.》

《황송하나이다. 허나 신은 맡은 일에서 조금도 겨를을 낼수 없으므로 도 리여 사냥에 따라나서지 않는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소이다.》

《제 속을 가리우고 하는 대답이로다. 나라를 세우기 위한 수많은 싸움터에서 수 를 간절히 청하였다.

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범처 럼 산과 들을 날으던 그대가 어찌 사냥을 마다할수 있었 겠느냐.》

《나라의 큰일을 맡은 몸 으로서 어찌 그쯤한 일을 묵 새길수 없겠나이까.》

《그대의 그 마음 고맙다 만 그대의 몸이 되여가는 모 습을 보니 내 마음 좋지 않 구나.》

《네?》

《그대의 일을 다른 사람 에게 얼마간 대신 보게 할 터이니 그대는 래일부터 말 미를 받고 사냥에 나가 기운 을 돋구고 머리도 푹 쉬울지 어다.》

《···》

이로서 정사모임은 끝나고 모두 흘어져갔으나 신지만은 오래도록 자리를 뜨지 못하

단군의 이와 같은 념려에 신지의 가슴은 뭉클하고 눈 굽이 뜨거워 선듯 일어설수 없었다.

이튿날 아침 신지는 단군 을 접견할 때에 모두 자기 맡은 일만으로도 바빠하는데 어떻게 자기 일을 더 맡기겠 는가고 하면서 사냥 떠나라 고 내린 지시를 거두어주기

루밖을 즐거이 보낸 그 이름 그러나 단군은 신지의 청 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날이였다. 이리하여 신지는 그 다음 이날도 날밝기 전에 사냥

어갔다.

디여 사냥을 떠났다. 몇년만에 처음으로 갑옷을 차려입고 군마를 타고 산과 들을 달리는 신지의 마음은

날 단군이 붙여주는 짐승몰

이군사 수백명을 데리고 드

한없이 상쾌하고 즐거웠다. 참으로 남아로서 말을 타 고 화살을 날리는 즐거움이 야말로 역시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것이 새삼스 에 나섰다. 이날엔 큰짐승을 잡아보자 고 험하고 깊은 산속으로 들

그러다가 실개천이 흐르는 어느 한 골안에 들어섰을 때

물을 먹으러 내려왔던 살 찐 두마리의 큰사슴이 군사 들의 몰이소리에 튕겨나 골 안으로 도망치고있었다.



레 느껴지였다. 그는 그동안 누리지 못한 사냥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 리러는듯 밤늦게까지 군사들

이 튕기여주는 짐승들을 쏘 고 또 쏘았다. 이렇게 첫날 사냥에서 잡

은 짐승을 가지고 어느 한

《사슴이 나타났다.》 《보았다.》

신지는 군사들의 환성에 이렇게 호응하고 전통에서 화살을 꺼내여 활에 메우면 서 사슴을 쫓았다.

군사들의 환성이 울리였다.

두마리 사슴이 화살촉끝에 마을에서 군사들과 함께 하 서 오르내리였다.

《좀더 가까이 가까이…》 신지는 말에 박차를 가했다. 신지는 애타게 기다리다 맞다든 이 짐승을 좀더 씨 워하고도 통쾌스럽게 단 한 살에 꺼꾸러뜨리려고 겨냥을 바재였다.

골막바지까지 몰리워간 사 슴은 산둥성으로 올려뛰였다. 신지는 경사진 막바지로 말을 몰아 올리면서 사슴을 쫓아가다 사슴이 등마루에 오르는 순간 활시위를 힘껏 당기면서 겨냥하였다.

그런데 경사지로 숨가삐오 르는 말잔등이 들까부는 바 람에 겨냥이 흔들리였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말잔 등의 률동에 맞추어 다시 겨냥하면서 화살을 날리려 는 순간 그만 두마리의 사 슴이 등마루너머로 홀까닥 사라졌다.

《아차.》 순간을 놓친 신지는 활을

내리우고 말고삐를 잡아채며 등마루에 다그쳐올랐다. 등마루에 오른 신지는 말 을 더 몰지 못했다.

방금 넘어온 사슴은 온데 간데 없었다.

아무리 사방을 살펴도 보 이지 않았다. 게다가 등마루 에서부터 두가닥의 골짜기가 열려져 사슴이 어느 골짜기 로 빠져내렸는지 가늠도 할 수 없었다.

《허, 맹랑한걸.》 신지는 다 잡았던 사슴을 놓친것이 아쉬웠다.

며 바닥에서도 천정의 벽화 쪼각들이 발견되였다.

러시기의 벽화무덤들이 종전 보다 삼석구역의 훨씬 더 넓 보존유적으로 등록된 장수 은 지역에 분포되여있다는것 을 확증해주었다.

본사기자

경계통에 질병이 있는 사람 들은 이러한 부정적영향을 미리 막아야 한다.

산보를 하고 잠을 충분 히 자야 한다.

본사기자

묵은 예로부터 우리 겨레 가 즐겨 먹어온 독특한 민 족음식의 하나이다.

터들가운데서 제일 크며 특

히 강당터는 고려왕궁 만월

구역 장수원동일대에서 발굴

약중 등 신경계통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영

특히 사람의 피는 태양활

향을 받는다.

묵은 메밀, 록두, 풋강 냉이, 도토리 등을 물망으 로 갈아 갈라낸 농마를 물 과 함께 끓여서 식혀 굳힌 음식이다.

제일로 일러오는데 파 란 록두로 만든것을 《청 포》, 노란 록두로 만든 것을 《황포》라고 한다. 묵을 만들 때 처음에는 묽은 농마물을 두고 약한 불에서 끓이다가 끓어나 면 농마물을 점차 걸게 풀 어두면서 잘 저어주어야

묵가운데서

한다.

그래야 가마에 타불지도 않고 알갱이도 생기지 않으 면서 묵이 잘 된다. 묵을 지나치게 빨리 식히

면 륌성이 낮은 묵이 만들 어진다. 반대로 온도가 높은 곳에

오래 두면 물기의 증발이 일어나 딴딴한 묵이 된다. 그러므로 묵은 알맞춤한 속도로 식혀야 한다. 묵은 양념간장을 쳐서 그

대로 먹기도 하고 부재료를 섞어 여러가지 료리로 만들 어 먹기도 한다.

여러가지 부재료를 섞어 만든 료리를 《묵채》라고 한다.

본사기자

유모아 《실물교양 어머니의

남편: 《여보! 이렇게 시퍼 런 대낮에 전등을 켜놓고있

으면 어떻게 하오?》 안해: 《나도 방금 들어왔 는데 집에 불이 켜져있더군

요. 》 남편:《아침엔 분명히 고 나갔는데…》

안해:《아들녀석이 그랬겠 지요 뭐.》 남편:《그럼 당신이라도 제꺽 꺼야지.》

안해: 《그럴수 없었어요 실물교양이 필요하길래.》 남편: 《숱한 전기가 날아 나는데 그건 무슨 소리요?》

안해: 《당신은 내가 애를 욕할 때마다 나를 책망하질 않았어요. 실물교양을 하지 않는다고!…》

남편: 《그럼 이게 어머니 의 실물교양인가?…》